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의 환상적인 케미>

아름다운 알크마르 도시에 도착해 시장을 찾아가는데 허기가 졌다. 가까운 마트에 들어가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를 사 얹어 먹는데 와, 그 점원 역시 친절하다. 복숭아를 주며 맛보라기에, 몇 개 구입하면서 씻어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두 말도 하지 않고 깨끗이 씻어다 준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진짜로, 엄청나게 친절하다. 우리는 복숭아를 우적우적 씹어 먹으며 아기자기한 골목길로 접어들어 드디어 치즈 시장에 도착. 시장은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로 이미 축제 분위기다.

어느 여성의 사회로 막이 오른다. 그 사회자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또 소개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시장인 듯 혹은 치즈 보스(?)인 듯, 그 남자는 말을 길게 하면서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느라 바빴다.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오래 들으며 마치 먼 산골에서 서울로 전학 온 아이처럼 두리번거리며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머리에 고깔모자를 쓰고 예쁜 에이프런을 두른 젊은 처자들이 각각 다른 치즈네 덩이를 15불에 판다고 홍보하며 다니기 시작했다. 치즈 매니아인 내가 그걸 놓칠 리... 나는 얼른 가서 두 세트를 구입했다. 시중에서는 적어도 그 값의 배는 족히 넘는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 그 치즈를 먹을 때마다 남편은 좀 더 많이 사오지 그랬냐고 했지만, 그 치즈 덩어리가 너무 무거워 감히 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하루 종일 종횡무진 쏘다니느라 밤마다 신음소리를 내며 이내 나는 잠에 폴아

떨어진다. 아~~ 자유여행, 이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다. 영어도 나를 만나 생고생이고! 다음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갈, 택시를 불러달라고 호텔 프런트에 전달한 다음, 나는 너무 졸려 저녁도 굶고 잤다. 뜨겁고 얼큰한 국물이 생각나 컵라면을 끓였는데 너무 졸려 자꾸 헛손질을 했다. 그 모습은 본 친구 Y가 고마 자라~~, 마이 프랜, 어서 자라고! 그녀의 말소리가 꿈결처럼 들렸다. ㅋㅋ.



<안네 프랑크의 집 입구>

다음날 우리는 이미 예약해놓은 안네 하우스를 방문했다.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시내를 관통해 운하를 지나고 골목길을 걷고 돌아서 그곳에 도착했다. 마침 주말인지라 세계 곳곳에서 쏟아진 관광객들로 인해 도시는 멀미가 날 정도로 복잡했다.

얼마나 걸었는지 드디어 내 발톱이 빠지기 일보 직전인지라 발이 너무 아팠다. 나는 운동화를 벗어두고 맨발인 채로 포도 위를 걸었다. 걷다가 다리 아르면 운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잠시 멍때리는 시간을 갖기도 하다 다시 일어나 또 걸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안네 프랑크가 꿈의 응답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숨어서 쓴 「안네의 일기」는 여학교 시절 우리의 바이블이었다. 우리 감성과 크게 다르



<맨발로 걷다>

지 않은 그녀만의 일기를 읽으며 나는 웃기도, 울기도 그리고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지금도 그 이야기는 여전히 가슴시리게 기억된다. 나치군에게 잡혀갈 때까지 숨어 살았다는 좁은 층계의 다락방, 비밀의 방 - 복원된 침실과 화장실까지 그때 그 모습으로 재현되어 있어 어디선가 안네의 한숨이 들리는 듯한 기시감이 느껴졌다.

밑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낮에는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그들이 퇴근한 후에야 겨우 활동했다는 글을 읽으며 가슴이 여전히 아렸다. 전시된 사진 밑에 설명서가 붙어 있는데 유독 한글만 없다. 친구와 나는 휴대폰 앱을 통해 영어 버전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고 있는데, 그때 계슈타프 같은 후리후리하게 키가 큰, 옆구리에 권총까지 지닌, 남성 두 명이 부리나케 올라온다.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듯싶더니 갑자기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출입구 주의사항에 사진 찍지 말란 얘기, 우린 이미 알고 있었다.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한국어 버전으로 변환해서 읽고 있다고 설명했더니 그들이 감동하는(?) 듯 보인다. 아마 내년 즈음엔, 한국어 버전으로 된, 설명서를 붙여놓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든다. 안네 하우스를 보는 내내 내 가슴이 조여오는 듯, 마음

이 아팠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숨어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니! 나쁜 히틀러 같으니라구!



<암스테르담 시내를 돌아 나오는 운하 체험>

암스테르담은 운하의 도시다. 운하의 도시답게 곳곳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 17세기 부유층 거주지로 조성된 지대라는데-- 지금도 운하는 주요 교통수단이자 관광객들에겐 빼놓을 수 없는 핫플레이스다. 좁은 수로를 따라 수면에 비친 건물들의 그림자 보는 맛도 운치 있다. 그날따라 하필, 햇볕이 어찌 뜨거운지 유리창 밑에서 나는 약간 괴로워했다.

여행이 중반을 달린다.

미리 예약한 택시를 타고 새벽에 스키폴 공항으로 갔다. 거기서 다시 스칸디나비아 비안 항공을 이용해서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건너가는 날이다.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서 코펜하겐 카스트룹 공항까지 비행기로 한 시간, 우리나라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시간과 얼추 비슷하다.



<코펜하겐 중앙역, 컬러플한 시내버스들>

코펜하겐 카스트롭 공항에서 코펜하겐 중앙역까지 기차로 단 10분 정도다. 중앙역에 내리니 온 도시가 다 환하다. 스쳐 지나가는 컬러플한 버스 때문인 듯했다. 하나같이 버스들이 산뜻하고 예뻐다.



<코펜하겐 중앙역 자전거 주차장>

코펜하겐 중앙역 역시 자전거 주차타워가 예술이었다. 우리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면 지금보다 공기 질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의지만 있다면 인프라 짚어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중앙역 근처의 예약한 호텔로 찾아 들어갔다. 이번 숙소는 중앙역과 가까워서 너무 좋았다. 화장실과 샤워장은 밖에 있어 약간 걱정했는데 - 기우다. 군데군데 이런 시설이 많아서 한 번도 밖에서 기다려 본 적 없으니. 그리고

숙소엔 세면대가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가성비가 끝내주는 호텔이다.



<코펜하겐 중앙역>

숙소에 캐리어만 밀어 넣고 우린 곧바로 밖으로 나왔다. 시내 중심부를 이리 저리 돌아다닌 다음 여러가지 간식거리를 사 들고 숙소로 돌아왔다. 코펜하겐 중앙역 바로 옆에 티볼리 파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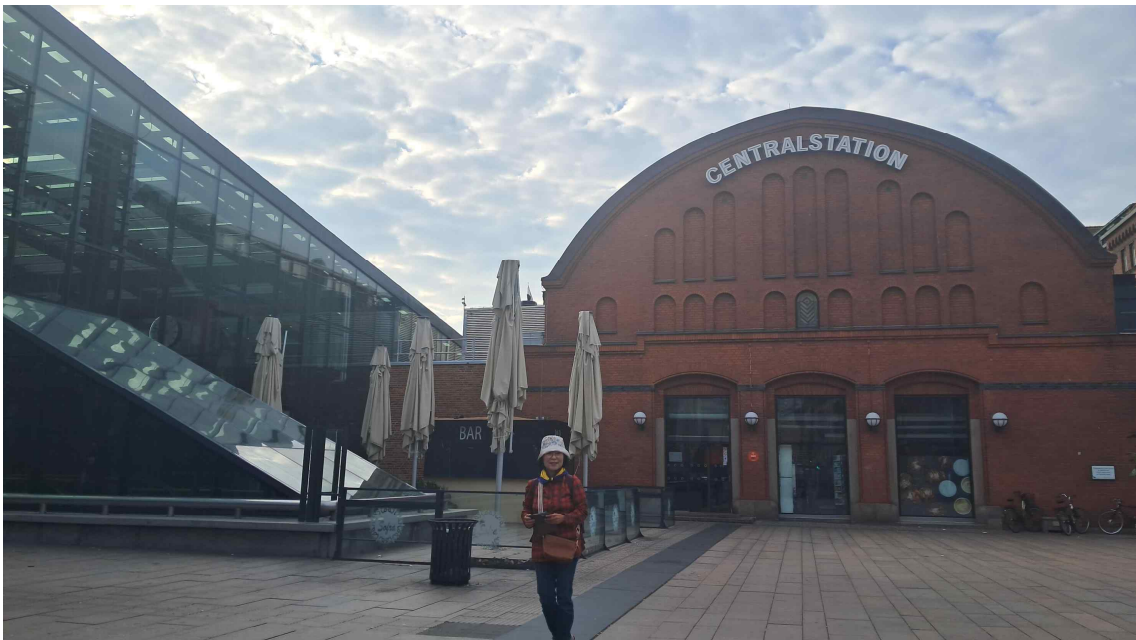


<티볼리 파크, 코펜하겐 중앙역 근처에 있다>

1843년 문을 연 테마파크다. 같은 이름의 공원이 스톡홀름에도 있지만 여기가 원조다. 게오르크 카르스텐센이 당시 국왕이었던 크리스티안 8세를 설득, 왕가의 정원을 개조한 건데 공원의 시초가 되었다. 왕이 이를 허락한 배경은 간단하

다. 위락시설을 만들어 정치에서 다른 쪽으로 국민들의 눈을 돌리려는 -, 이런 역사는 우리도 가지고 있음을 - 이래서 국민들은, 사회현상에 대해 잠수함의 토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월트 디즈니 역시 티볼리 공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주말 저녁 폭죽을 터뜨리며 도시가 온통 축제 분위기다. Y는 카메라에 담는다면 늦은 밤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녀가 걱정되어 빨리 돌아오라고 몇 번이나 잔소리한 다음, 바로 또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
♪~~^^.



<스웨덴 말뫼 중앙역>

다음날 우린, 코펜하겐 중앙역에서 스웨덴 말뫼역까지 기차(30분 정도 소요, 308DKK, 라운드티켓 2장)로 건너갔다. 3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말뫼는 스웨덴 남서부의 스코네주에 속해 있는 도시다. 스톡홀름과 예테보리에 이어 3번째로 규모를 자랑한다. 붉은 벽돌의 웅장한 시청사와 성 베드로 교회 등이 도심에 있는데 가보진 못했다. 말뫼 역에서 광장으로 걸어 나오니 엄청 큰 건물이 우릴 맞는다. 알고 보니 말뫼대학교다. 주일이라 그런지 너무 적요했다.